

고은 불교대하소설

수미산 무너지다

무 세계는 할 일이 없을 뿐더러 할 이야기도 없다. 일체가 정신의 투명 그 자체로 마감된 것이었다.

어쩌면 무색계의 기운은 공기조차 없는 태초 그대로의 진공상태 자체의 무의지인지 모른다. 그 무심의 극점!

그런데 그 극점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정신의 움직임이 아무런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서 이 세계의 영역 안에 속하지도 모른다. 이제 이곳에서는 우녀도 우녀인지 누구인지 모를 영식만이 있으므로 자질로 상(相)이 없어서 공(空)이었다.

그 공은 우주의 허공 자체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모든 욕망과 물질적 형태로부터 벗어난 생명의 일원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무색계는 공이 육계 색계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 그곳의 생명에 부여된 기체를 말하기도 한다. 다만 무색계가 우주의 현실로 되는 일은 육계와 색계 초산전까지를 1세계(一世界)라고 할 경우 그런 우주 단위에서도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이 1세계가 1천개쯤 모이면 소천세계(小千世界)가 되는데 그것은 우주 가운데 수없이 이루어져 있는 단위이다. 그 소천세계가 1천개 모여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 1천개가 대천세계이다.

1천의 3승(三乘) 세계, 즉 10억개의 1세계들이 모인 것이 3천대천세계인 것이다.

이같은 우주 가운데서 무색계까지도 그 진공상태 자체가 그저 진공이 아니고 진공의 기운이 오묘하게 일어남으로써 윤회의 경내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또



다시 한번 드러내 본다. 부질없는 일이다.

지금 그들은 다 무색계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색계나 육계의 어딘가에 가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을 허공의 대기(大氣)없는 진공 속에 불러다가 산화(散華)시켜보는 것도 하나의 우주적 기운이 노는 일인지 모른다.

인담
우녀
망화
남각
합두
무전
파연
수원
수월

것으로 이 1소세계의 일로 삼음이 아니겠는가.

그들 중의 누구도 지난 세상에서 증생으로서의 사연을 잊어내면서 살아왔다. 인담만 하더라도 그가 무욕도에 건너오기 전까지는 온갖 때도는 야승(野僧)으로서 그가 경계마다 만나는 인연이 있고 사연이 있어야 하였다.

하지만 심을 개척하고 난 뒤의 가나긴 날들의 공부는 그런 인연들을 붙여진 재처럼 식어버리게 만들었다. 그가 그 심을 떠난 다음 생(生)들도 어디 하나 단 순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태어나나 죽어나 마친가지였다. 이제 그런 적적하기까지 한 역경까지도 자위버린 무색계 아래의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무색계에는 티끌조차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색계



상에는 두 줄기 등길(繩道)이 수레바퀴자국처럼 파여 있다.

그 산을 물로 건너서 지옥산이 있는데 수려의 속과 같은 산봉우리 모양이었다.

이 이 침묵(沈黙)처럼 둘러 있는 청옥산이 있고 풍광이 좋은 선진산, 말귀와 비슷한 마이산과 상비산 지자산 등 일곱 금산(金山)이 있다. 이 산들을 금봉의 외곽에서 둘러싸고 있는 원 물려의 철위산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산들의 중심에 솟아오른 수미산은 금은 유리 수정 등의 보석으로 이루어져서 그 보석의 빛이 허공에 반영되어 남쪽에서는 청색으로 보이고 다른 쪽에서는 황색, 적색, 백색으로도 보이는 것이다.

이 일곱산 사이에 여덟바다가 있는데 중앙의 수미산 외해는 수미해라 부른다. 그 다음의 일곱 내해(七海)는 달고 차고 따뜻하고 가볍고 맑고 밤새없고 마실 때 시원하고 마신 뒤 상하지 않는 여덟가지 공덕의 물로 되었다.

하지만 지자산에서 수미산 사이의 36만3천2백80유순의 외해는 흰 바닷물이다. 이 흰 바닷물 위에 동서 남북의 대주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인 남쪽이 삼부나무가 자라는 삼부주 곧 사바세계인 것이다.

이 사바세계 남쪽 삼부주의 동북쪽 반도 연안에 마치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에 심상치 않게 골려있는 죽은채처럼 무인도를 있게 했는데 그 중의 외한 것 하나가 인담이 이름지어 무욕도가 되었다.

수미산 중턱에 걸려 빛나는 해와 달의 빛이 가장 눈부시게 내려오므로 옛날 어느 뱃사람이 달을 보는 섬(看月島)이라 하기도 하였다.

간월도가 먼저인지 무욕도가 먼저인지야 굳이 알 아볼 사람이 없다.

지금은 그런 섬은 그러하고 반도 전체와 그 반도 이웃의 열도나 대륙의 많은 부분이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바다 깊이 가라앉아 버렸다.

태고시대 이어진 육지였다가 그것이 다시 떨어져나가 대륙과 반도 열도였다가 그것들이 한꺼번에 바다 가운데 가라앉아버린 것이니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깊은 물 속에서 깊은 감회도 다시 만난 것인가.

윤회는 우주의 힘... 해탈은 새로운 윤회

"모두 다 마음이다"

색계 육계무색계 수미산이 무너지니
멸망은 그 무엇보다도 장엄하였다

한 그곳의 무의지와는 또다른 실재이다.

그러므로 우주 속의 여러 신들이나 그 신들을 섬기는 존재들도 윤회라는 굴레 안에서 입사라 뛰쳐나갈 수 없다. 그 신들조차도 인젠가 짐승이나 지옥 아귀의 증생이었다가 다시 신으로부터 그런 증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주의 투명한 허공 그 자체가 윤회의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로 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욕망 때문이고 어리석음 때문이라면 그것을 벗어나는 해탈은 무엇인가.

해탈은 윤회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윤회를 딱 멈추고 그것이 다시 굴러가지 않게 하는 해탈이야말로 우주 전체의 윤회와 함께 새로운 윤회인지도 모른다. 윤회야말로 우주의 힘이고 세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법칙이 아니겠는가.

중생들의 세세생생 행로에서는 윤회야말로 더 없는 정진이고 수행이 아니던가.

그러다가 어떤 중생이 한 군데에 집착하면 그것이 고힘이 되고 그것이 전생다생을 통해서 가장 낮은 업장이 되어 다른 곳을 꿈꾸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생에게는 본디 고힘이 없다. 고힘이 있을 진대 모든 윤회의 시간과 공간들이 고힘이 아닐 수 없다.

여기 지난 세상 무욕도의 수행 동료들의 이름을

불이
대해
소석
효영
명오
상수
상울
박월
길성
순종이
우식
만우

그리고 이름모를 행자.

그들이 떠난 뒤로 그 삼에 살던 갈매기 까지 영무새 박새 딱따구리와 뭇벌레들과 잔짐승들도 어디서 무엇이 되어 있다가 육계의 여러 곳, 색계의 여러 하늘 그리고 무색계가 지 넘나드는 기운의 생명으로 생사를 거듭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들도 여기에 본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윤회를 벗어나는 공부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공부를 되풀이하면서 어느덧 그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 자체를 해탈의 수레바퀴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이 저 바다 앞의 수평선에서 파도쳐 오는 것처럼 아득히 다가오는 행복에 잠겨있는

아래 층 초산전이나 공기가 있어서 거기에 티끌이 있는 것이라면 그런 색계의 티끌 하나에 억감이 들어있다 해도 맞고 억감이 들어있지 않다고 해도 맞으리라. 바람이 있었다.

바람이 있다면 그 색계는 수미산 1세계가 이루어진 우주 허공에 풍륜(風輪)이 아닌가. 처음 바람은 우주의 커다란 힘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힘으로도 부술 수 없게 견고한 것이었다. 바람이 견고하다니, 바람이 고체처럼 견고하기 짝이 없더니.

넙이 무수(無數) 두께 16억유순이나 되는 그 바람 덩어리 위에 수레바퀴와 같은 어머니마한 빔방울이 파부어져서 거기 고인 것이 수륜(水輪)이 아닌가. 그 수륜의 깊이 11억2천만유순이었다.

바로 그 물에 다른 바람이 생겨나서 물의 면(面)이 영계 금륜(金輪)으로 되었다. 마치 끓인 찜을 그대로 두면 영겨붙어 막(膜)이 되는 것처럼.

그 금륜 직경은 각각 12억3천4백유순, 둘레는 36억 1만3백50유순이었다.

바로 이 금륜 위에 사각주형(四角柱形)의 아스라히 솟아난 산이 있는데 이것이 수메루이고 소미로(蘇迷盧)이고 수미산인 것이다. 혹은 금강산으로도 부르고 묘고산(妙高山) 묘광산(妙光山) 안명산(安明山) 선적산(善幢山) 선고산(善高山)이라고 부른다.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지장산이 있는데 그 산 정

그런 지각변동의 큰 일은 도대체 어떤 업장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런 윤회로 만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

모두 다 마음이다.

그렇지 모른다. 그러나 이 세계가 무아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름지을 노릇도 어떤 아이의 투정 같은 것인지 모른다. 누군지 모른다.

색계 초산전에서 문득 내려다 보았다. 그런데 저 아래 수미산 아래쪽에서 아주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까지 들려올 소리라면 실로 엄청난 소리가 아닌가.

해탈 3백36만리나 되는 수미산 밑에서 나는 소리가 육계와 색계 사이의 멀고 먼 거리를 솟아오르기 까지 그 소리가 얼마나 힘을 다한 것인가. 바로 그 소리는 수미산이 밑으로부터 주저않는 소리였다.

마침내 색계 육계가 다 없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무색계의 우주도 없어지는 것이었다. 수미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멸망은 그 무엇보다도 장엄하였다. 아흐!

현대불교의 창간과 더불어 시작된 '수미산'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예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사적 가치와 미술사적 가치가 하나로!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한국전통미술의 백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이진형선생이 재현하여 문화재 가치의 작품으로 소장 보급합니다.

· 재질 : 청동 100% ·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 大(40.5cm), 小(26.5cm)-2종류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 | | | |
|----------------|----------------|------------------|
| 관음순 720-1147-8 | 진영사 734-3116 | 광명사 732-4792 |
| 삼보원 732-9904 | 성불사 735-3545 | 녹야원 739-0957 |
| 삼복사 733-0903-4 | 신양불교사 735-6719 | 불교서적사 732-8086-7 |
| 건지불교사 739-3032 | 종합불교사 733-6655 | 이화불교사 720-1700 |
| 불사원 720-5676 | | |

한국전통미술의 백미를 현대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에게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